

일본정원  
“우라쿠엔”

有楽苑



이 한국어 텍스트는 일본 관광청에서 제작했습니다.

# 우라쿠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라쿠엔은 17세기의 귀한 다실인 ‘조안(如庵)’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안은 다도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여겨지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3개의 다실 중 하나입니다. 1971년에 나고야철도주식회사(메이테쓰)가 조안을 매수하여 가나가와현 오이소(大磯)에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犬山市)로 이축했는데, 그곳에 이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라쿠엔을 만들 때 메이테쓰의 설계자가 목표로 한 것은 조안의 창설자인 다인·오다 우라쿠(織田有楽, 1547-1621)의 기호를 구현하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라쿠엔이라는 이름도 '우라쿠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 우라쿠엔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국보 ‘조안(如庵)’

오다 우라쿠(織田有楽)는 오와리국(현재의 아이치현 서부)에서 이누야마 성을 쌓은 힘있는 무사의 일족 오다 가문 출신입니다. 1618년에 속세를 떠나 교토의 겐닌지 절 경내에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이라는 이름의 저택을 지었습니다. 다회(茶會, 차모임)를 사랑한 우라쿠는 저택 옆에 다실을 설계하여 건축하고, 그 다실을 조안(如庵)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조안과 그 주위의 건축물은 메이지시대(1868-1912)까지 교토에 남아있었지만, 그 후 소유자가 바뀌면서 여러 번 이축되었습니다. 조안과 쇼텐인의 일부는 결국 미쓰이 가문의 소유물이 되었고, 가나가와현 오이소의 저택으로 이축되었습니다.

1969년 미쓰이 가문은 이 건물들을 조안의 다정(다실에 딸린 정원, 로지)에 있던 물건들 및 그 외 많은 역사적 유물들과 함께 메이테쓰에 매각했습니다. 메이테쓰는 이 매입을 발판으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정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 계획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유명한 건축가이자 건축사학자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 1895-1984)였습니다. 호리구치는 부임 전 수십 년 동안 조안을 비롯한 다실의 옛 스케치와 도면, 사료를 수집하는데 힘썼으며, 조안과 다른 다실에 관한 저서도 집필했습니다. 조안의 복원을 감수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환상적인 정원을 만들게 된 기회는 호리구치의 필생의 사업을 집대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미야코린센메쇼즈에」로부터

# 우라쿠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정원 건설

메이테쓰가 우라쿠엔의 건설지로 선택한 곳은 이누야마 성에서 가까운 유원지 터였습니다. 건설의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1971년 5월 18일, 호리구치가 나고야에 도착해 보니 메이테쓰의 종업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고, 버스도 전철도 모두 운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호리구치가 이누야마에 온 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 아침, 호리구치는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을 뚫고 현지를 시찰하러 갔습니다. 작업자들은 호리구치가 도쿄에서 보낸 도면을 토대로 1주일에 걸쳐 건물 위치를 표시하는 밧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호리구치는 자신이 설계한 선과 전혀 맞지 않고, 조안의 위치도 틀렸다고 격노했습니다. 다음 날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와 다음 해에 걸쳐 호리구치의 지휘 아래, 수복사, 석공, 목수가 우라쿠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재조립하고 복구했으며, 정원사의 손길이 세심하게 미친 생생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호리구치는 7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메이테쓰의 우비를 빌려 공사장에 나갈 정도로 온힘을 다해 임했습니다. 호리구치는 21번이나 이누야마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상세한 지시사항을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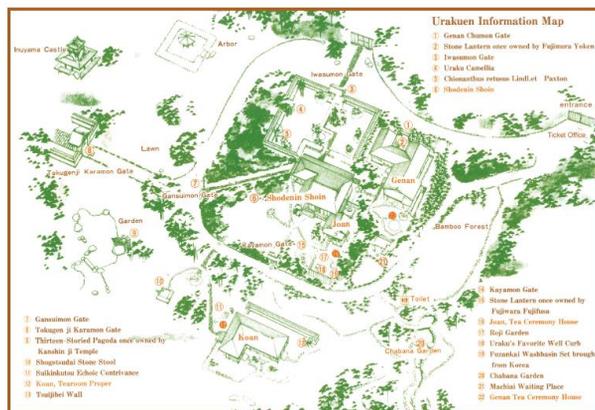
## 비전 실현

호리구치 스테미는 자연 소재의 특성을 디자인에 접목한 실력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호리구치는 맨처음에 그려던 정원의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돌과 나무의 개성을 살리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호리구치는 조안의 복원과 정원 조성 계획을 세울 때 사료와 1799년에 그려진 우라쿠의 저택 그림을 참고했습니다. 건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울타리 모양, 징검돌 배치, 소나무 위치, 대나무 종류에 이르기까지 조안의 원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했습니다.

1799년에 그려진 그림에는 석탑이 있는 낮은 언덕이 있었고, 그 옆에는 소박한 돌다리가 놓인 연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호리구치는 연못을 파는 대신 고운 백사로 물을 표현하는 가래산수(枯山水)로 이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또, 우라쿠가 달구경을 하기 위해 사각으로 둘러친 '쇼게쓰다이(소월대)'라고 하는 곳도 재현했습니다. 정원 곳곳에 수백 년 전 문과 석등, 쓰쿠바이(신성한 장소 입구에서 제공되는 세면대)를 도입하고, 수십 그루의 거목과 돌을 옮겨 심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우라쿠엔은 당초에는 간단한 이전과 수복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정원 전체가 더 커졌습니다. 그 설계는 17세기 다인(茶人)의 미적 감각과 거장 건축가의 헌신과 비전,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를 위해 유지관리하는 관리인의 꾸준한 노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 오다 우라쿠의 생애

---

오다 나가마스(織田長益)는 1547년에 오다 노부히데(織田信秀, 1511-1549)의 11번째 아들로 오와리국(현재의 아이치현 서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출가를 하고부터 '우라쿠'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라쿠의 형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는 후에 천하통일을 꿈꾼 3대 무장 중 최초의 1인으로 도쿠가와 막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라쿠는 2번째로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 3번째로 천하통일을 이룬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있는 무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라쿠는 무인보다는 문화인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일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다인(茶人), 센리큐(千利休, 1522-1591)를 스승으로 모시고 다도를 배웠습니다. 격동의 시대였던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우라쿠는 빈번하게 다회(茶會, 차모임)를 열어 여러 파의 화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후에 교토의 절에 은거한 우라쿠는 그곳에 그의 대표작인 다실 '조안(如庵)'을 지었습니다.

### 청년시절

우라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세였던 1567년에 형 노부나가 막 제압한 기후에서 노부나가와 합류했습니다. 1581년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기후 땅을 찾아 수 백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우라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본어로 '조안'이라고 발음하는 'João'('John'의 포르투갈어)이 세례명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 후에 우라쿠는 자신의 다실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1582년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우라쿠와 노부나가 교토의 혼노지(本能寺)라는 절을 방문했을 때, 노부나가 신하 중 한사람이었던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1528-1582)에게 배신을 당해 그 세력들에게 혼노지 절을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부나가는 포로가 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결했습니다. 노부나가의 장남인 오다 노부타다(織田信忠, 1557-1582)는 아버지와 자결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라쿠의 조언에 따라 노부타다는 그 자리에서 할복했지만, 우라쿠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 다회를 통한 조화 실현

노부나가 살아있을 때 우라쿠는 오다 가문에 가르침을 주던 다인, 센리큐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몇 년 후 리큐가 도요토미 가문을 섬기게 되었을 무렵에 우라쿠는 다시 리큐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또, 어느 기록에는 우라쿠가 리큐 칠철(利休七哲, 센리큐의 제자 중에서 특히 우수했던 7인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우라쿠의 다도에 대한 탐구심은 당시와 같은 긴박한 정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라쿠는 16세기 후반 광범위한 평화활동의 일환으로 수많은 중요한 국면에서 조정역할로 다회에 참가했습니다. 1585년에는 노부나가의 옛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노부나가의 차남이자 후계자인 오다 노부카쓰(1558-1630) 사이의 평화 교섭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라쿠는 히데요시와 히데요시의 전 측근이자 조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다회에 참가했고, 1586년에는 이 둘 사이의 평화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 오다 우라쿠의 생애

---

### 대립하는 충성심

1598년 히데요시가 세상을 뜨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후계자, 가신들과 싸움을 시작했고,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쇼군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라쿠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측 무장으로 활약했는데, 그 공적으로 넓은 영지를 받았습니다.

히데요시의 측실인 요도도노(淀殿, 1567-1615)와 그의 어린 아들인 히데요리(秀頼, 1593-1615)를 제외하고 이에야스는 1614년까지 히데요시파의 잔당을 제압했습니다.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오사카성에 머물며, 지원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도도노의 숙부인 우라쿠는 여러 차례 요도도노에게 이에야스와의 화해를 중용했으나, 적대관계가 이어지자 화가 난 우라쿠는 1615년 초에 오사카를 떠났습니다. 그해 6월 이에야스의 공격으로 성은 함락되었고, 요도도노와 히데요리는 자결했습니다.

### 은거

오사카에서의 일에 낙담해서인지 같은 해 우라쿠는 교토에 은거했습니다. 1617년에는 겐닌지 절과 협상하여 노후화된 배전 하나를 재건해 은거처로 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618년에는 새로 완성한 쇼덴인(正伝院, 정전원)이라는 이름의 사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3년 후에 우라쿠는 75세의 나이로 타계했고, 저택 부지에 묻혔습니다.

### 우라쿠가 남긴 것

우라쿠의 후계자와 제자들은 '우라쿠류'라고 불리는 차의 유파를 계승했는데, 그 전통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2년 3월 23일에는 우라쿠류의 제15대 종가(어느 일족, 일문에서 적통 가계)인 오다 나가시게(織田長繁, 1918-1992)가 우라쿠엔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우라쿠가 자노유(손님을 초대해 말차를 대접하며 즐기는 것. 다도의 의의에 가깝지만, '차를 즐긴다'는 것을 더 중시한다. 또는 그러한 모임)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진심을 담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손님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라쿠는 다인들이 대가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 없이 모방하는 것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라쿠의 주체성은 스승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가르침을 반영한 '조안(如庵)'의 디자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다 우라쿠 동상  
(쇼덴에겐인에서 소장중)

## 조안

---

오다 우라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조안’은 그의 차에 대한 미학과 개성이 구현된 것입니다. 센리큐(1522-1591) 등과 같은 다인들이 쌓아올린 다실 건축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점이 많은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혹은 그것 때문에) 조안은 명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오가타 고린(尾形光琳, 1658-1716)은 조안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위해 복제를 의뢰했습니다. 그 복제된 다실은 현재 교토의 닌나지 절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조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다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초기의 역사

1621년 우라쿠가 타계한 후 그의 유품은 겐닌지 절의 관리 하에 놓였고, 기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신정부가 1872년 전국 불교시설의 권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겐닌지 절의 토지와 기타 소유물은 강제로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그 결과 쇼텐인쇼인, 조안, 조안의 다정(다실에 딸린 정원, 로지) 등을 포함한 우라쿠 저택의 소유권이 교토 기온에 양도되었고, '우라쿠칸(有樂館, 우라쿠관)'이라는 명칭으로 찻잎 가공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기온은 1908년에 이 건물을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에게 매각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쓰이 다카미네(三井高棟)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 미쓰이 가문

미쓰이 다카미네(三井高棟, 1857-1948)는 19세기 말 유명한 부유 상가 중 하나였던 미쓰이 종가의 10대 당주였습니다. 그는 평생동안 다도를 배웠고, 전통적인 건축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쇼텐인쇼인과 조안, 그리고 조안의 다정을 구입하여 1908년에 도쿄의 아자부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이축했습니다. 1938년 그는 가나가와현 오이소의 별저에 은거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했습니다. 노후에는 다도에 전념하고자 했고, 또 밀집된 도쿄에서는 화재 위험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도쿄가 불바다가 되었어도 이 건물은 이미 도쿄를 떠나 있어 무사했습니다.



## 조안

---

### 이누야마(犬山)로의 이전

미쓰이 다카미네가 세상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1년에 조안은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미쓰이 가문의 오이소 저택에 대한 권리와 그 건축물, 미술품 등의 대부분을 메이테쓰(나고야철도주식회사)가 취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라쿠엔 설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1년 초 조안을 이누야마(아이치현 이누야마시)로 옮기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건물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벽과 버팀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엑스레이 촬영이 실시되었습니다. 해체가 시작되자 꼼꼼한 도면 작성과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각 부속품에는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모든 부속품은 안습과 방수커버로 감싸고, 현관 부분(토방과 그 주변 벽)은 더욱 강력한 보강을 위해 나무틀로 포장했습니다. 부속품은 진동흡수장치가 있는 대형트럭에 실렸고, 조안은 1971년 3월 31일 오전 1시 30분 NHK 취재진과 함께 오이소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화물이 규정 높이를 약간 넘겨 트럭 1대가 발이 묶이는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다실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톨게이트 직원들은 트럭을 통과시키는 것을 주저했고, 초조했던 메이테쓰의 사원이 최종적으로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복원과 수복

조안이 무사히 이누야마에 도착했고, 수복사들이 재조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빗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의 영향으로 수리가 필요한 곳도 있었지만, 원래의 건물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썩은 버팀목 등 손상된 구조부분은 합성수지로 보강하고, 나무와 비슷한 질감을 재현하기 위해 도장을 했습니다. 또 지붕의 판재 등 교체가 필요한 것은 당시의 공법과 재료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수복사들은 이 기회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변모된 조안의 모습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오이소에서의 배치를 완전히 바꾸어 조안과 쇼덴인쇼인을 우라쿠의 교토 저택에 있던 배치로 재결합했습니다. 오이소에서는 쇼덴인쇼인의 남동쪽 모퉁이에서 바깥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라쿠엔에서는 이 복도를 없애고 쇼덴인쇼인의 뒷마루에서 조안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배치로 변경했습니다.

# 조안

## 건축의 특징

조안에서는 다회(茶會, 차모임)에 오신 손님은 건물 남서쪽 지붕이 있는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사무라이는 칼을 빼내 맹장지 안쪽 작은 방 선반에 넣고 들어갑니다. 손님들은 모두 신발을 벗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작은 입구(니지리구치)를 통해 기둥 좁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안의 다실 넓이는 3.25조(약 5.9㎡)에 불과했는데, 이는 센리큐가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2조 넓이의 방보다는 넓지만 '작은방(小間)'으로 정의되는 4.5조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우라쿠가 손님의 쾌적함을 중시하여 다실을 넓게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라쿠는 비교적 밝은 다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조안의 지붕에는 돌출창이 있어 천창처럼 열 수 있습니다. 또 동쪽 벽에는 '우라쿠마도(有樂窓)'라고 불리는 조안 특유의 창이 2개 있습니다. 이 창문들은 사각의 반투명 창으로 가는 대나무가 수직으로 박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대나무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장지문을 닫으면 대나무 그림자가 비쳐 품격 높은 음영이 생깁니다.

정면 벽과 낮은 니지리구치 반대쪽에는 다른 타입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타지마도'라고 하는데, 벽의 일부를 회반죽으로 덮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대나무와 갈대의 격자를 노출시킨 창입니다.

조안의 장식 중에서도 특히 더 특이한 것은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벽면 아래 3분의 1이 오래된 달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는 1629년 것도 있습니다. 이 장식은 '고요미바리'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주변의 물건을 재사용하여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암자의 꾸밈없는 소박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타지마도



니지리구치

# 조안

---



우라쿠마도



고요미바리



## 쇼덴인쇼인

쇼덴인쇼인은 조안과 마찬가지로 1618년에 겐닌지 절에 있는 우라쿠의 저택 일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쇼덴인쇼인이 보여주는 것은 원래 쇼덴인(正伝院, 정전원)이라 불리던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쇼덴인은 큰 겐닌지 절 경내에 있는 탐두사원으로 우라쿠의 개인실과 정원, 다실, 심지어는 불전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쇼덴인의 쇼인은 우라쿠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독서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1908년 쇼덴인의 각 부분이 다양한 매입자들에게 매도되었는데, 이때 쇼인은 미쓰이 다카미네가 매입하여 조안과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라쿠엔 창설의 일환으로 이누야마(아이치현 이누야마시)로 이축되었고, 우라쿠가 있던 무렵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건물 배치도 원래의 우라쿠 저택과 비슷하게 재현되었습니다.

### 복원공사

1971년에 재건될 때 건축가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1799년에 그려진 우라쿠 저택의 그림을 참고하여 쇼인의 외관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호리구치는 미쓰이 가문이 추가한 쇼인과 다실을 연결하는 지붕 딸린 통로를 철거하고, 쇼인의 남쪽 가장자리에 원래 존재했던 낮은 난간을 재현했습니다. 호리구치는 또 남쪽에 배치할 아주 긴 직사각형 돌계단을 주문했습니다. 메이테쓰가 쇼인을 취득할 당시 지붕은 경량의 파도모양 기와를 쌓은 산카와라부키(기와지붕)였지만, 옛 도면에는 평평한 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리구치는 모양이 비슷하고, 내구성이 있는 동판 지붕을 선택했습니다.

### 건축의 특징

쇼덴인쇼인의 정면 입구는 북쪽에 있으며, 예로부터 기품과 격조를 나타내는 완만한 커브의 차양(가라하후, 중앙은 활꼴에 양끝이 곡선형으로 된 건축양식) 아래에 있습니다. 쇼인에는 이 기와지붕 입구 외에 6개의 방이 있으며, 건물 서쪽에는 미즈야라고 불리는 부엌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라쿠가 있던 시대에 이 방은 사실 미즈야가 아니라 쇼인과 쇼덴인의 불전을 잇는 복도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구에서 내벽을 보면 눈길을 끄는 흰색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은 색으로 된 부분은 건물의 대들보나 버팀목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의 진흙 회반죽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망간이 표면에 녹아들면 산화되면서 가장 바깥층이 갈색을 띠는 검은색으로 변색됩니다. 단, 벽 안쪽에 나무틀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영향이 경감됩니다.



## 쇼덴인쇼인

---

### 후스마에(맹장지에 그린 그림)

쇼인의 방은 후스마(襖)라고 하는 슬라이드식 큰 장식 패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스마는 병풍처럼 여러 개의 판에 걸쳐 그려진 풍경화가 많은데, 쇼인의 후스마는 우라쿠가 있던 시대의 일류 화가들이 장식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방의 후스마에는 하세가와파(長谷川派) 창시자인 하세가와 도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가 그린 것도 있었습니다. 8장의 패널에는 중국 고대 회화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는 연꽃, 난초, 국화, 매화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세가와 특유의 스타일로 그려진 수목과 바위, 인물 등이 특징인 후스마에는 그의 중년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쇼덴인이 창건되기 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우라쿠의 옛집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인의 다른 후스마에는 일본 그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노파(狩野派) 화가들의 수목산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후스마에는 아주 오래되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보전을 위해 쇼인에서 반출되었습니다. 하세가와파가 그린 2장의 국화 후스마에는 우라쿠엔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 수집가의 소유로 추측됩니다.



후스마

## 젠안

젠안은 근대에 재건된 다실로, 과거 우라쿠가 살았던 오사카 집 다실의 옛 도면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그 다실도 '조안(如庵)'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라쿠엔을 구축함에 있어 이 도면을 토대로 지어지는 다실의 정식 명칭이 필요했는데, 호리구치는 최초의 은거지를 의미하는 '젠안'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이 다실의 역사를 풀어가기 위해서 호리구치는 현재 조안과 관련된 유물 중 하나로 남쪽에 걸려있는 편액을 참고했습니다. 이 편액에는 '조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나, 그 날짜가 1599년이라고 되어 있어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이나 조안이 교토에 세워지기 훨씬 이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리구치는 이 편액은 이전부터 있던 같은 이름의 다실을 위해 만들어졌고, 우라쿠가 오사카를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와 교토에 세운 새 다실에 이 편액과 이름을 다시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라쿠는 1614년 겨울까지 오사카성 바로 북서쪽에 위치하는 덴마(天満)에 살았지만, 그의 옛 거처는 그 3년 후에 신설된 가와사키토쇼구(川崎東照宮)에 예속되었습니다. 1837년에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우라쿠의 다실은 신사의 일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871년에 이 땅에 조폐국이 신설되었고, 그 부지 일각에 당시 다실의 일부로 입실 전에 손님들이 신발을 벗는 '구쓰누기이시(답탈석)'이 남아있습니다. 젠안을 재건할 때 호리구치는 이 돌을 우라쿠엔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섭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젠안 재건이 완료되면서 편액이 필요해졌습니다. 호리구치는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과거 나라(奈良)의 기코지 절에 걸려 있던 비판(扉板)으로, 오이소의 미쓰이 가문 별저에서 재사용되었다는 유서 깊은 목재를 선택했습니다. 우라쿠엔 직원들은 목재를 교토까지 운반하여 오모테센케 제13대 종장 무진 소사(無盡宗左, 1901-1979)에게 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편액에 선택한 이름을 새기고, 새로 완성한 다실을 정식으로 '젠안'이라 명명했습니다.

젠안은 조안보다 넓고, 내장도 마찬가지로 과격적인 것들뿐이었는데, 그 중에는 우라쿠의 스승인 센리큐의 취향에서 분명하게 벗어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라쿠는 방의 마감으로 창호지 창문의 나무틀 등에 리큐가 싫어했던 대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나누는 기둥에도 대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리큐는 다회(茶會, 차모임)용으로 선택한 족자나 꽃꽂이를 손님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지만, 우라쿠는 도쿄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를 주인 뒤편에 배치했습니다.



주인 토코

## 고안

'조안'이나 '겐안'과는 달리 '고안'은 우라쿠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라쿠엔이 개원한 지 10여 년이 지난 1986년에 나카무라 마사오(中村昌生)와 교토전통건축기술협회가 설계한 현대적 디자인의 다실입니다. 역사적인 2개의 다실은 평소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고안은 우라쿠엔의 일반 고객을 위한 카페공간(카페테리아)으로, 최대 2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다회(茶會, 차모임)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고안은 당시 메이테쓰의 사장이었던 다케다 고타로(竹田弘太郎, 1916-1991)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현관에 걸려있는 편액은 겐안의 편액을 새긴 인물의 후계자인 오모테센케 14대 이에모토(한 유파의 정통을 잇는 집의 당주) 지묘사이(而妙齋, 1938-)가 작성한 것입니다.

고안에는 2개의 응접실이 있는데, 넓은 방은 15조(약 24㎡)로, 조안처럼 아담한 다실에 비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중앙에 위치한 큰 도코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의 천장으로 8세기 초의 삼나무판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기후(寄付)라고 불리는 작은 방은 8조(13㎡) 넓이로, 주로 넓은 방에서 행해지는 다회의 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후에서 다회를 여는 경우는 없지만, 도코노마나 화로 등 필요한 설비는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후의 도코노마에는 넓은 방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소박한 분위기입니다. 오른쪽 기둥은 적송의 통나무를 껍질째 가공한 것으로 바닥에는 작은 썬기가 박혀 있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잘려진 장식은 죽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다케노멘(筍面)'이라고 부릅니다. 겐안에 있는 도코노마 중 하나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안으로 이어지는 길에 스이킨쿠쓰라고 하는 음향장치가 숨겨진 돌로 된 수수밭이 있습니다. 이 수수밭을 둘러싼 조약돌 아래에는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드는 도자기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히샤쿠(물뜨개)로 물을 부으면 물방울이 항아리 속에 떨어지면서 거문고의 음색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넓은 방은



스이킨쿠쓰라고

## 은거처 만들기: 다실과 로지(다실의 정원)

### 와비차: 검소라는 이름의 미학

16세기 일본의 유력인사들은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이나 동맹 결성을 위해서 다실이라는 좁고 소박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권세를 누리던 남자들이 나지막한 문간을 지나 숲속에 있는 은자의 소박한 오두막 같은 방에서 작은 이로리(일본의 전통적인 난방장치)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강력한 지도자들이 '와비차'라고 하는 다도의 미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16세기까지 차를 마시는 의식은 주로 승려나 귀족, 상급무사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다회(茶會, 차모임)는 상류층 저택의 호화로운 응접실이나 절당에서 열렸으며, 다기는 중국에서 수입된 섬세한 장식이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와비차는 소박한 소재와 최소한의 장식에 의한 절제된 장인기술로, 간소하고 세련된 것을 중시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승려 무라타 주코(村田珠光, 1423-1502)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의 사상을 오사카의 호상이었던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가 도입했고, 그 제자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다인 중 한 사람인 센리큐(千利休, 1522-1591)가 계승했습니다. 와비차는 리큐의 힘있는 무사들의 지원 아래 무사계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다도에서 주류를 이루는 미학이 되었습니다.

### 다실: 리큐의 이상

리큐를 비롯한 다인들은 다실은 산에 있는 오두막 같은 분위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실 이름의 대부분에는 '정양소'나 '은신처' 등을 뜻하는 '암(庵)'자가 접미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야마자토'라고 하는 설계개념을 좋아한 리큐는 소박한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다실을 둘러싸듯 다정(다실에 딸린 정원)을 두고, 둘을 하나의 콘셉트 공간으로 융합시켰습니다.

리큐가 이상으로 한 다실은 아담하고 독립된 암자였습니다. 손님들은 작고 네모난 니지리구치로 기듯이 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실 안은 천정이 낮고, 가구도 없으며 장식도 소박했습니다. 건물 전체는 거의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소재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조출한 초가였습니다.

정원 또한 리큐 미학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별채 다실에는 징검돌을 깔 오솔길이 있는 작은 정원 '로지'가 있어야 한다고 리큐는 생각했습니다. 다회는 정식으로 가이세키 요리가 나온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회가 시작되기 전에 손님들은 정원 바깥 '마치아이'라고 불리는 지붕이 있는 대기공간에 모였습니다. 주인의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징소리 또는 다른 신호로) 손님들은 로지를 따라 다실로 향했습니다. 이 로지는 일반적으로 멈춰 서서 손을 씻기 위한 쓰쿠바이앞으로 나 있었습니다.

### 우라쿠의 다실

리큐의 제자였던 우라쿠는 리큐가 좋아했던 와비차나 작은 별채 다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한편으로 우라쿠의 다실에는 무사의 다도로 통하는 호화로움도 남아 있습니다. 조안과 겐안은 리큐의 다실들보다 클 뿐만 아니라 지붕은 초가가 아닌 널빤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실 도쿄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의 가장자리에 검은 옷칠을 하여 리큐가 보았다면 너무 화려하다고 했을 법한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은거처 만들기: 다실과 로지(다실의 정원)

### 조안의 로지

징검돌, 쓰쿠바이, 우물, 석등 등 로지의 실질적인 부자재는 1908년 조안과 함께 미쓰이 가문에 매각되었습니다. 건축가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1799년에 그려진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의 그림을 토대로 각 요소의 배치를 복원했습니다. 또 호리구치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수목에 맞춰 흑송과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남서쪽 구석에 있는 원형의 우물은 와비차의 시조인 무라타 주코(村田珠光)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우라쿠는 주코를 매우 존경했으며, 주코의 원래 우물 수복을 도운 우라쿠는 그 후에 자신의 정원에도 유사한 것을 만들어 '겐나 원년(1615) 9월 2일, 우라쿠'라고 새겼습니다.

조안의 로지에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해(釜山海)'라고 이름 붙여진 쓰쿠바이(다실 입구에 설치한 손 씻는 물그릇)입니다. 이 이름은 돌의 산지가 부산의 해안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가 조선에 출병했을 때, 이 희귀한 돌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히데요시에게 헌상되었고, 그 후 히데요시가 우라쿠에게 보냈습니다. 이 돌의 중앙 움푹 패인 곳은 파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데, 이는 와비차 미학에서 이상적인 쓰쿠바이입니다.

### 겐안의 로지

겐안의 로지는 에도시대(1603-1867) 중기에 그려진 그림을 토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다실 남쪽에 지붕이 있는 마치아이(待合)가 있고, 거기에서 징검돌을 건너가면 정육면체의 작은 쓰쿠바이가 있습니다. 그림에 의하면 원래는 쓰쿠바이 양쪽에 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유형은 '사방불 수수발(四方佛手水鉢)'이라고 하며, 분해된 석탑의 기초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호리구치는 겐안에 적합한 이런 종류의 쓰쿠바이를 찾을 수 없어서 심플한 입체형을 선택했습니다. 또 호리구치는 우라쿠가 있던 시대와 유사하게 작은 참나무와 남천측으로 쓰쿠바이를 둘러쌌습니다.

주의: 정원 일부에는 검은 끈을 묶은 돌로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메이시'라고 해서 그 앞쪽은 출입금지임을 나타냅니다.



쓰쿠바이'부산해'



도메이시

## 이와스몬·간스이몬

---

### 이와스몬

우라쿠엔의 장엄한 정문은 17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라쿠엔에 있는 다른 문과 마찬가지로 이 문도 예전에는 미쓰이 가문이 소유했고, 오이소 별저 정원에 있었습니다. 이후 조안과 함께 우라쿠엔으로 이축되었습니다.

이 문의 지붕은 범종 모양으로 만곡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보면 그 형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굽어있는 문은 '가라몬'이라 하며, 지붕 가운데 용마루 부분이 입구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문은 '히라카라몬'이라고 합니다.

이 문의 지붕은 히와다부키(노송나무 껍질을 사용한 지붕)로 되어 있는데, 판자가 오목하게 구부러져 있어 배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저천장(船底天井)'이라고 불립니다.

### 간스이몬

간스이몬의 연대와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문도 예전에는 미쓰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호리구치는 이 문을 우라쿠엔의 어디에 배치할지 정할 때, 기하학적이고 족자의 가장자리처럼 깔끔한 이 문의 라인을 살려 안뜰이 사진틀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경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문을 지나면 가지런히 깔린 돌담길이 길고 곧게 뻗어 있고, 나무와 이끼가 우거진 터널 너머에는 쇼인의 서쪽이 나뭇잎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와스몬



간스이몬

## 도쿠젠지 절 가라몬·가야몬

### 도쿠젠지 절 가라몬

이 문은 일찍이 나라(奈良) 근교의 선종 사원(좌선을 기본 수행으로 하는 절)인 도쿠젠지 절의 일부였습니다. 도쿠젠지 절은 1632년에 우라쿠의 형이자 오다 노부나가(織田高長, 1590-1674)가 오다 가문을 위해 창건한 사찰입니다. 시간이 지나 도쿠젠지 절은 폐허가 되었고,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자 이 문만 남았습니다. 이후 1941년에 미쓰이 가문이 매입했습니다.

문 천장에는 모란이 조각되어 있고, 문짝에는 특이한 이랑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소재와 형상이 고상하고 고귀한 느낌을 줍니다.

이와스몬과 마찬가지로 이 위엄있는 목조 문도 가라몬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카이카라몬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넓고 범종 모양의 박공이 있으며, 그 중앙의 능선이 문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가야몬

이 소박한 문은 우라쿠엔의 다른 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둥은 나무줄기를 거칠게 가공한 것이며,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이 아니라 띠로 이어져 있습니다. 문미(문 위에 가로 댄 나무)가 낮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문의 소박한 구조와 낮은 입구는 센리큐(1522-1591)가 확립한 와비사비(일본의 전통 미의식 중 하나)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야몬은 센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문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문은 리큐에서 파생된 오모테센 가문의 다인이었던 미쓰이 다카미네(三井高棟, 1857-1948)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나무문을 연 상태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에는 ‘구구리도(潛戸)’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작은 문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정면 문을 닫으면 이 작은 문이 열리는데, 손님은 더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구리도는 다회(茶會, 차모임) 때 손님이 정숙한 다른 세계에 왔음을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가라몬



가야몬

## 차도구

---

찰잔, 물항아리, 가마솥 등 차를 끓이기 위한 도구를 총칭하여 ‘차도구’라고 합니다. 유파나 다회(茶會, 차모임)의 종류,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차도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차를 끓임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 찰잔

다회에서는 다회의 주최자인 집주인이 찻잔에 말차를 만듭니다. 16세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고급 찻잔이 많았고, 16세기 초에는 일본 다인들이 고려에서 전해진 소박한 느낌의 찻잔을 좋아했습니다. 그 찻잔들, 특히 이도다완(井戸茶碗)이라 불리는 것은 후에 일본의 다도를 지배하게 되는 ‘와비’의 미학, 즉 평온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오늘날 가장 비싼 찻잔 중에는 평소 사용하는 저렴한 식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16세기가 되자 일본의 가마모토(도자기를 굽는 곳)에서는 독자적인 다기를 만들게 되었고, 센리큐와 제자인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 1544-1615) 등이 그 보급에 힘썼습니다.

대부분의 찻잔에는 '정면'이 있는데, 찻잔의 모양 혹은 주된 장식(세밀하게 그려진 꽃이나 눈길을 끄는 유약 등)에 의해 정면이 정해집니다. 찻잔의 정면은 다도의 예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주인은 찻잔의 정면을 손님 쪽으로 해서 냅니다. 손님은 겸허한 마음으로 ‘정면’으로 마시는 것을 피합니다. 찻잔에는 실로 다양한 모양과 디자인, 크기가 있습니다. 겨울용 찻잔은 차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두껍고 깊이가 있는 것이 많고, 여름용 찻잔은 차를 빨리 식히기 위해 넓고 얇은 것이 흔히 사용됩니다.

### 박차기(薄茶器)

다회에서는 박차(薄茶)라고 불리는 것이 나옵니다. 박차의 재료가 되는 말차는 밀폐용기에 넣어 다회 직전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박차기’라고 불리는 찻통에 적당량을 옮겨 담습니다. 차를 끓일 때 주인이 찻통에서 말차를 떠서 찻잔에 넣습니다.

찻통은 매우 장식미가 있으며, 옷칠을 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쓰메(柶)’라고 불리는 것으로, 바닥이 오프라진 둥근 원통형 용기가 대추열매(일본어로 나쓰메)와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 차작(茶杓)

차작은 얇고 평평한 도구로, 한쪽 끝이 완만하게 휘어져 있어 주인이 말차를 찻통에서 찻잔으로 옮겨 넣을 때 사용하며, 보통 한 찻잔에 말차를 차작 2개분 떠서 넣습니다. 차작의 대부분은 대나무로 만들지만,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만든 것이나 상아, 별갑, 귀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 차선(茶筴)

말차에 부드럽게 거품을 내기 위해 대나무로 된 차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은 찻잔에 말차와 뜨거운 물을 넣은 후 말차가 완전히 녹아 차 표면에 거품이 날 때까지 재빨리 저어 거품을 만듭니다.

차선 끝이 곧은 것과 둥근 모양인 것 등이 있는데, 다도의 유파에 따라 취향이 나뉩니다.

# 차도구

## 우라쿠의 차도구

우라쿠는 당시로서는 가장 귀한 차도구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그 대부분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개인의 수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라쿠가 타계한 후 귀한 작품들은 친구에게 맡겨지거나, 겐닌지 절에 공양으로 봉납되었습니다. 또, 우라쿠는 십여 점의 차작을 비롯한 차도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차도구에는 작가나 군주와 관련된 시적 정취가 풍부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1937년에는 우라쿠의 이름을 딴 오이도다완(大井戸茶碗)이 치열한 입찰전을 벌였습니다. 그 찻잔은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라쿠의 도구 중에서 또 하나의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차이레(농차(濃茶)용 말차를 넣어두는 도자기제 용기)입니다. 1612년, 우라쿠는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 1598-1615)에게 차이레를 바쳤습니다. 1615년, 오사카성이 공격을 받아 소실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잣더미 속에서 이 차이레를 회수하도록 명령하였고, 차이레는 도쿠가와 가문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이도다완 명 유라쿠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차도구

## 자노유를 맛보다: 우라쿠엔에서의 다도 체험

---

우라쿠엔의 '고안(弘庵)'에서는 전통 자노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끼와 징검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고즈넉한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차를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우라쿠엔의 다도 자리는 차를 끓이는 등의 절차가 몇 가지 생략된 약식 다회(茶會, 차모임)입니다. 고안의 다사(茶事)는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식 다회와 마찬가지로 의식화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차 예법에 대한 각 절차와 간단한 설명입니다.

### 1. 자리에 앉는다.

다회에 초대받은 손님은 무릎을 꿇고 앉는(정좌라고 불리는 앉는 방법) 것이 일반적이지만, 책상다리를 하거나 옆으로 앉는 것도 괜찮습니다.

### 2. 직원이 화과자가 놓인 접시를 낸다.

화과자에는 나무막대(구로모지)가 달려 있습니다.

### 3. 왼손으로 접시를 들어올린다. 오른손으로 나무막대를 들고, 화과자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먹습니다.

화과자는 앞으로 마실 말차의 맛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차가 나오기 전에 다 먹습니다.

### 4. 직원이 말차 찻잔을 눈앞에 두고 가볍게 인사를 한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무릎 앞 바닥에 대고 그 인사에 답합니다.

정식 다회에서는 옆에 있는 손님(아직 차가 나오지 않은 손님)에게도 인사를 하여 먼저 마시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 5.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가장자리에 대고, 다른 손가락은 바닥에 가까이 가져가 왼손 손바닥에 찻잔을 올린다.

### 6. 허리 높이로 찻잔을 들고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다.

정식 다회에서는 주인이 각각의 찻잔 '정면'(보통은 주된 장식 요소가 있는 쪽)을 손님 쪽으로 둡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나타냅니다. 답례로 손님은 찻잔 정면에 직접 입을 대지 않음으로써 겸허함을 표합니다.

### 7. 마신다.

박차(薄茶)라고 불리는 이 말차를 만드는 방법은 농차(濃茶)에 비해 적은 양의 찻잎으로 만듭니다. 농차는 일반적으로 여러 잔의 차가 나오는 본격적인 다회에서는 식후에만 제공됩니다.

### 8. 다 마시면 오른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댄 찻잔의 가장자리를 닦는다.

찻잔을 닦는 것은 청결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참가자들이 같은 찻잔을 돌려가며 차례로 마시는 방식에서 생겨났습니다.

## 자노유를 맛보다: 우라쿠엔에서의 다도 체험

---

9. 찻잔 정면이 자신의 맞은편을 향하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바닥에 다시 놓는다.  
이때 찻잔을 찬찬히 보면서 모양과 장식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회에서 사용하는 찻잔은 귀한 것이 많으므로 찻잔을 바닥에 가까이 두고 감상해 보도록 합니다.

10. 차를 다 마시면 직원이 도코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의 족자와 꽃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 장식들은 각각 계절에 맞게 특별히 선택된 것으로, 대부분은 주인이 전하고 싶은 분위기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이누야마 도자기

우라쿠엔에서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누야마 도자기 찻잔으로 차가 제공됩니다. 19세기 초, 이누야마 성주가 지역의 도자기 가마모토(도자기를 굽는 곳) 설립을 지원하며 숙련된 도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작품과 제조법의 변화 속에서도 이누야마시에 있는 3개의 가마모토는 변함없이 전통적인 기술과 디자인의 찻잔, 꽃병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 초기의 이누야마 도자기

이누야마시 이마이지구에서 처음 도자기가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중후반이었습니다. 초대 가마모토 주인인 오쿠무라 덴자부로(奥村伝三郎)가 미노국(현재의 기후현 남부)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마이야키라고 불리는 오쿠무라가 만든 도자기는 광택이 있는 갈색 유약을 바르며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박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81년에 3대째가 세상을 뜰 때까지 그의 후계자들이 이마이무라(今井村)의 도자기 가마(가마모토)를 지켜왔습니다.

1810년, 시마야 소쿠로(島屋宗九郎, 연대 미상)라는 지역상인이 이 지역의 도자기 생산 부흥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누야마 성주인 나루세 마사나가(成瀬正壽, 1782-1838)에게 탄원하여 마루야마 지구에 도자기 가마를 여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누야마 도자기의 시초입니다.

처음 10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1817년에 새로운 가마모토 주인이 가마를 계승했고, 1822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도공이 찾아왔으며, 근처의 세토나 시다미에서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1831년까지는 이 지역 장인의 염부(染付, 도자기 제작기법 중 하나)와 아카에(빨간색을 기조로 한 그림. 넓게는 도자기를 뜻하며, 중국에서는 '오채(五彩)'라고 부른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뻐한 마사나가는 1836년 가마모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2년 후에 마사나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뒤를 이은 나루세 마사즈미(成瀬正住, 1812-1857)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누야마 도자기의 가장 인기 많고 특징적인 디자인이 된 벚꽃과 단풍을 조합한 '운킨데(雲錦手)' 제작을 가마모토에 의뢰했습니다.

이누야마 도자기는 그 후에도 새로운 가마가 생겨났고, 도예가가 그림 기법과 디자인 기술을 연마하면서 계속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초 폐번치현과 메이지시대(1868-1912)로의 이행과 함께 도자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 근현대의 이누야마 도자기

이 중단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후 이누야마 도자기 생산은 재개되었습니다. 1883년에 이누야마 도자기 회사가 설립되어 많은 장인들이 (때로는 같은 가마에서) 일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891년에 있었던 노비 지진으로 가마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회사는 해산했지만 몇 명의 장인이 이누야마 도자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와 제조로 전환해야 했던 가마모토도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급 도자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누야마에서는 현재도 오제키사쿠주로토보, 고토토이쓰토엔, 오사와큐지로토엔의 3곳에서 전통적인 디자인의 찻잔, 꽃병, 풍경 등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아카에(빨강과 녹색)의 디자인과 운킨데의 모티브는 금색 액센트와 비단벌레색 메탈릭의 소용돌이 무늬, 질감이 있는 유약을 입힌 작품과 함께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라쿠엔에 있는 가게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이누야마 도자기 고급 찻잔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마모토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작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이누야마 도자기

---



아카에



운킨데

## 우라쿠엔의 사계절

많은 전통예술이 그러하듯이 다도에서도 계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회(茶會, 차모임)는 계절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인은 계절적 요소로서 장식이나 차도구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원도 일년 내내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라쿠엔에서는 단팥이 든 과자의 색처럼 섬세하게 혹은 만개한 벚꽃처럼 멋지게 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시가에는 1년을 사계절뿐만 아니라 24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시기마다 각각 꽃과 과일, 새 등 계절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화와 피코리는 이른 봄의 상징이고, 보름달과 억새는 초가을의 상징입니다. 다회에서 그 상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도쿄노마에(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장식하는 족자와 꽃꽂이입니다. 족자는 계절의 이미지를 그린 그림이나 계절행사와 관련된 글을 걸고, 그 계절을 반영한 꽃이나 식물 등을 꽃꽂이로 장식합니다.

우라쿠엔의 ‘자하나엔(茶花園)’은 일년 내내 꽃이 피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바깥 정원 중에서도 고즈넉한 이곳은 고안(弘庵)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무그늘길을 걸어 돌다리를 건너서 폭포를 지난 곳에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에서 물이 흘러내려 풍경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정원에는 우라쿠가 좋아하던 다양한 품종의 동백꽃을 비롯하여 쪽동백나무, 납매, 조팝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회에서는 주인과 손님의 기모노나 찻잔의 형태, 장식, 다과의 종류에 의해 더욱 섬세한 계절의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라쿠엔에서는 봄에는 분홍색, 여름에는 녹색, 가을에는 오렌지색, 겨울에는 흰색으로 테를 두른 과자가 제공됩니다.



## 우라쿠엔의 주목할 만한 식물

---

우라쿠엔은 오다 우라쿠(織田有楽, 1547-1621)와 일본 다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우라쿠가 평소에 좋아했을 것 같은 정원을 목표로 호리구치와 조경업자가 나무, 초목, 이끼 하나하나를 엄선해 배치하고 기른 것입니다. 벚꽃과 동백꽃이 색을 더하고, 키 큰 대나무 숲이 주위 시가지를 차단하며, 풀고사리와 이끼가 석축에 세월감과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모든 식물이 정원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식물을 소개합니다.

### 우라쿠 동백나무

우라쿠 동백나무(*Camellia uraku*)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전래된 동백나무와 일본 동백나무의 교배종으로 동백나무를 각별히 사랑한 우라쿠가 조안 근처에서 재배, 식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잎은 홑겹이고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도드라지며, 중간 크기의 핑크색 꽃을 피웁니다. 3월부터 4월에 걸쳐 꽃이 피고, 다실 꽃꽂이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라쿠엔에서는 쇼인의 북쪽 정원 서쪽 벽을 따라 심어져 있습니다.

### 이팝나무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는 5월 중순에 레이스 모양으로 향기로운 흰꽃을 피웁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희귀한 종으로 환경성 적색 목록(Red list)에 멸종위기 II급(VU·취약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누야마시 교외에 집단으로 자생하는 이팝나무는 1923년에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난자문자' 등 일본식 이름이 여럿 있는데, 그 이름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호리구치는 쇼인 북쪽 정원 유난히 눈에 띄는 곳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 구갑죽

구갑죽(*Phyllostachys heterocycla f. heterocycla*)은 키가 크고 두께가 있는 대나무로 마디가 교대로 비스듬히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 거북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식물입니다. 맹종죽이 자연적으로 변이된 것으로, 우라쿠 저택에 대한 사료와 그림에 의하면 구갑죽은 맹종죽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 씨앗이 우라쿠엔 곳곳에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갑죽은 젠안 입구 부근의 한 구획에 자라고 있습니다.

### 살아 있는 운킨(벚꽃·단풍)

우라쿠엔에는 이누야마 도자기의 모티브인 '운킨(雲錦)'이 살아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고안(弘庵) 옆 흰 회반죽 벽 바로 북쪽에 오솔길을 따라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머리 높이 부근에서 줄기가 갈라지고 그 벚나무 줄기 가운데에서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